

광주·전남 스포츠 스톱...국제·전국대회 잇단 연기

광주오픈 국제 챌린저 투어 테니스 순천오픈테니스·무안 핸드볼대회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줄줄이 차질

광주·전남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대회와 전국규모 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무더기 연기됐다. 국제대회 유치로 지역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지역경제를 살찌우려는 지자체와 체육단체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최근 "4월 10일부터 전남 순천시 팔마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순천오픈 테니스대회 개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순천오픈의 새로운 개최 시기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협회는 또 4월 27일 개막 예정이던 남자프로테니스(ATP) 서울오픈 국제챌린저대회를 시작으로 5월 초에 부산과 광주에서 열리는 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까지 모두 8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 열릴 예정인 광주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는 광주에서 단일 종목으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다. 세계 4대 메이저 대회(호주·프랑스·윌빙턴·US오픈)와 '마스터즈 1000' 대회, 투어(TOUR) 대회에 이은 중급 규모로 분류된다. 지난해 대회에는 32개국, 선수단 400여명이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도시 광주 브랜드 구축에 기여했다. 앞서 2, 3월에 개최 예정이던 여수오픈, 제주국제주니어대회, 전국중년선수권 등도 열리지 못했

다.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 추후 개최 일정은 4월에 재논의될 예정이다. 애초 도민제전은 오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또 오는 21일 전남 무안에서 개막할 예정이던 2020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중고선수권대회가 잠정 연기됐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추후 개최 시기를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 테니스 대회 전면 중단에 일부 선수들 온라인 구직 활동 SNS에 이력서 올리며 레슨 등 홍보

남녀 프로 테니스 대회 4월 중순까지 전면 중단되자 일부 선수들이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구직 활동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남자프로 테니스 알렉스 드미노의 소셜 미디어 사진. (ATP) 투어 및 챌린저 대회는 앞으로 6주간 대회를 열지 않기로 했고,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역시 4월 초까지 기존 일정을 취소했다. WTA 투어의 4월 중순 이후 대회 개최 여부는 추후 정해진다. 또 투어 및 챌린저 대회보다 등급 낮은 국제테니스연맹(ITF)의 서킷 대회들도 6주간 중단되면서 이렇다 할 후원사 없이 대회 상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 일부 선수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WTA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58위 사치야 비커리(25·미국)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력서를 공개했다. 그는 "4월 20일까지 일할 수 있다"며 "2017년 US오픈 본선 진출, 2018년 투어 대회 4강, 호주오픈 2회전 진출 등"이라며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통상 상금 120만2497달러(약 14억6000만원)를 받았지만 2018년 7월 말 73위 이후 랭킹이 계속 내려가며 150위 밖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대회마저 중단되자 구직 활동에 나섰다. 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26위 알렉스 드미노(21·호주)는 실외 주차장에서 만화 캐릭터 얼굴 모양을 상의처럼 입고 찍은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그러면서 '구직 중'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사실 드미노는 올해만 우리나라 돈으로 4억원이 넘는 상금 33만426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생계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한창 열기왕성한 20대 초반인 드미노로서는 '대회에 뛰고 싶다'는 뜻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노아 루빈(224위·미국)과 조니 오마라(복식 랭킹 54위·영국) 등도 테니스 레슨을 해주겠다고 홍보에 나섰다. 물론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 상금이 3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톱 랭커들은 이런 '구직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대회가 없는 기간은 고독하게 보내고 싶다"며 "휴일 낮잠은 낮잠 두 번에 팝콘을 먹으며 지냈다. 요리나 청소는 하지 않았다"고 여유를 보였다. /연합뉴스

81%가 "도쿄올림픽 연기·중지"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설문

7월 개막 예정인 2020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미루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약 80%에 이르는 일본 매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호치가 1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가운데 전체의 62%가 '개최를 연기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답변과 아예 중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9%로 비슷하게 나왔다. 연기 또는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1%나 됐다. 온라인상에서 클릭 몇 차례로 이뤄진 조사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일본 매체인 스포니치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나왔다. 스포니치의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890명이 응답했고 이중 연기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57.2%인 509명이나 됐다. 스포니치는 '만약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세계적으로 종식되지 않으면 위험 부담이 크다'거나 '선수나 관객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연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답변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또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0.6%(183명), 예정대로 진행은 17%(151명)로 각각 집계됐다. 스포니치의 조사 결과에서도 연기 또는 취소가 77.8%로 거의 80%에 육박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6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45%로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는 응답 40%보다 많았다.



하이파이브 대신 팔꿈치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한 동네공원에서 배구를 하고 있는 소녀들이 하이파이브 대신 팔꿈치를 부딪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애리조나 주정부는 모든 학교 클럽 훈련과 경기를 중지시켰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체육진흥지원사업 경기력 향상 기여

전국체전 10위로 4단계 상승

광주시체육회의 체육진흥 지원사업이 전국체전 성적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은 시·도별 실업팀 수 및 경기력 향상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재정 여건과 실업팀 창단의 어려움에도 사업비(국비) 6억5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다. 시체육회는 국비를 훈련(경기)용품,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등으로 활용했다. 육상 등 31개 종목과 스포츠과학센터에 총 286개 품목 6785점의 훈련(경기)용품을 지원했고, 소프트테니스 등 19개 종목에는 61차례에 걸쳐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를 지원했다. /연합뉴스

이같이 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 우수선수 발굴, 꿈나무 선수 육성, 초·중·고·일반부 연계육성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종합 10위(전년 대비 4단계 도약)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수들의 열악한 훈련여건이 개선됐고 경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선수들이 훈련(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3월1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18일(수) 전남 광양 쫓비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3월2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3월21일(토) 여수 천혜의 비경 연도(소리도) 섬 트레킹, 봉선동 롯데슈퍼앞 03: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3:20, 염주체육관 정문 03:30, 한국병원앞 03:40, 문예회관 정문 육교길 03: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4: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3월22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3월 22일(일) 북한산(835.6m) 백운대-만경대-대동문, 염주체육관 05:00, 무등경기장 05:20, 동광주홀플러스 05:4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3월2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25일(수)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 트레킹,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와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 정경(2002-XXXXXX)
· 최후주소: 광주 동구 예술길15번길 10-1(5동) 피상속인 양 정경의 상속인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정승인을 광주지방법원 2020-단254호, 2020-단255호로 신청하여 2020년 3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관계 및 승계는 공판정판부터 신고(제)에 채권신고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3월 17일
· 상속인: 1. 정권(600815-XXXXXX) 순천시 왕지3길 36, 107동 602호 (양자형, 원배계승인) 2. 정현(611212-XXXXXX) 용인시 기흥구 중대동559번길 11, 123동 304호 (양자형, 양분배리지) 3. 정미경(600707-XXXXXX) 나주시 발기정로 800, 301동 203호 (양자형, 양분배리지) 4. 정수경(610816-XXXXXX) 광주 남구 용대동171번길 7, 3동 508호 (양자형, 양분배리지) 5. 정희(603008-XXXXXX) 광주 동구 예술길15번길 10-1(5동) · 신고기간: 2020. 3. 17. ~ 2020. 5. 26. ·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3. 정미경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인비저블맨
2관	1917
3관	스타 이즈 본, 레미제라블, 맘미아! 비긴 어게인, 어거스트 러쉬
4관	정직한 후보
5관	인비저블맨, 작은 아씨들, 맘미아!
6관	인비저블맨
9관	다크 워터스, 슬럼독 밀리언어
7관	씨네커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8관	씨네커플 스타 이즈 본, 레미제라블, 맘미아! 비긴 어게인, 어거스트 러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h3>동화 음악회</h3> <p>GAC 기획공연-FOCUS 동화음악회 <책으로 똥을 뚫는 돼지></p> <p>4.7(화) 11:00, 14: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p>	<h3>엠마뉴엘 체크나보라얀 바이올린 리사이틀</h3> <p>GAC 기획공연-FOCUS 엠마뉴엘 체크나보라얀 바이올린 리사이틀</p> <p>4.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p>	<h3>화양연화 : 강남구 초대전</h3> <p>GAC 기획전시 화양연화 : 강남구 초대전</p> <p>3.27(금) ~ 5.10(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p>
--	---	--